

환율 1050원대 추락…수출기업 ‘비상’

기아차 광주공장 연 1400억 환손실

원·달러 환율이 2년11개월 만에 1050원대로 떨어지면서 지역 수출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올해 평균 환율을 달려당 1100원으로 예상했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연 1400억원의 환손실을 입게 됐다. 지난해 평균 기준 환율이 1156.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8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지역 산업체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10원 내린 1057.0원에 마감했다. 2008년 8월21일(1054.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로존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약세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

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환율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70%에 이르는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환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환율이 10월 떨어질 때마다 연간 매출액이 28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아차 전체적으로는 800억원, 현대·기아차 그룹으로는 2000억원에 달한다.

기아차는 올해 평균 환율을 달려당 1100원으로 내다보고 경영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환율이 예상보다 50원가량 떨어지면서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대로라면 당초 예상보다 1400억원,

지난해(평균 기준 환율 1156.3원)와 비교하면 2800억원 이상 매출감소가 예측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내외적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제 비율이 높았던 달러를 줄이고, 유로화와 기타 통화를 점차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도 수출 비중이 60~70%에 달해 환손실이 우려된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해 총 매출 4조407억원 가운데 수출이 3조원 가량 차지했다.

수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정유사들도 환율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내려가면 원유 수입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서 호재를 만난다.

것 같지만 수출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실적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0여 곳에 달하는 광주·전남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예상하는 환율 변동폭은 10~15원 선으로 연간 5% 정도에 불과하다”며 “넉달여만에 환율이 74원가량 급락한데다 원자재가 상승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환율이 1100원 선 밑으로 하락할 경우 중소기업의 80% 정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

기아자동차는 지난 8~9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이삼용 사장을 비롯해 전국 지역본부장 및 지점장, AS사업부 등 국내영업본부 임직원 4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전국 지점장 판매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기아차는 하반기에 프라이드 후속 소형 신차 UB(프로젝트명)을 새로 출시해 소형차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차 제공>

전셋값 폭등 세입자 허리 훤판다

광주 전세 시가총액 올 초보다 10.68% 상승…전남도 7.68%

광주의 전세 시가총액이 연초에 비해 두자릿수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전세 시가총액이 올해 1월보다 80조원이

나 늘어난 가운데 광주와 전남도 올 초에 비해 각각 10.68%, 7.68%나 증가한 것.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씨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광주의 전세

시가총액은 올해 1월보다 1조9541억 1400만원 늘어난 20조2532억9800만원이었으며 전남도 5274억6100만원 늘어난 7조2370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는 6대 광역시 중 부산(11.32%)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시·도별 집계에서도 6위를 기록했다.

부동산씨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이 정부의 안정화 조치에도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고 금리가 올라 하반기에도 전세 시세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파트에 정전 발생하면 관리자에 즉각 알려 조치

한전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각 알려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정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0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형철)에 따르면 한전은 아파트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전감지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아파트에 정전이 발생하면 한전과 아파트 관리소장, 전기안전관리자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전송,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배전선로 순간 정전이나 아파트 11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1000㎾ 이상 고압아파트 11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1000㎾ 이상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파트 내 전력공급이 자동차단 된다.

계약전력 1000㎾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UVR이 차단되면, 수동으로 ‘ON’ 상태로 조치를 해야만 다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광주시 북구 일대 변전 계통 이상으로 순간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와 상가 등 2만여 가구가 정전됐다. 한전은 3분 내에 복구해 전력을 정상 공급했지만, 아파트에는 관리자가 퇴근하고 없어 구내에 설치된 UVR 차단기를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50여분 동안 정전 피해를 입게 됐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이 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1000㎾ 이상 고압아파트 11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1000㎾ 이상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49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수첨				
3	10	20	26	35	43	3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059,715,250	3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2,047,632	39			
3	5개 숫자 일치	1,567,458	1,295			
4	4개 숫자 일치	50,000	65,963			
5	3개 숫자 일치	5,000	1,114,025			

“부품·소재 中企 살길은 세계 1등 제품 생산”

‘탱크주의’ 열풍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 인터뷰



“대우일렉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우일렉이 지역에 어떻게 안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가가 중요하죠.”

1990년대 초반 대우전자 사장 시절 ‘고장 안 나는 제품’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탱크주의’ 열풍을 불리웠으켰던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지난 8일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주최 금요조찬포럼에서 ‘이 시대 세계 경영은 우리 것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주제로 강연을 한 배관장은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CEO로 몸담았던 대우일렉(전 대우전자)의 때 각과 관련, “흑자를 내는 기업인만

큼 주인이 누가 되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역경제·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관심을 뒀습니다.”

“대우일렉은 흑자 기업 누가 주인되느냐 보다 지역발전 기여가 중요”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술이 완벽하면 예술이 된다”며 “지역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걸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뿐”이라고 세계 경영을 강조했다.

대우전자 회장,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배관장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변신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함께 펼쳤던 ‘세계경영’의 경험을, 미술관의 ‘세계화’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그 출발로 서울 소격동 옛 기무사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배관장은 “연 200만명이 다녀가는 세계적 미술관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탱크주의 마케팅’과 과감한 투자, 선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탱크주의는 실적 위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다운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국립현대미술관도 좋은 건축물, 명물이 되도록 여론을 들어가며 느긋하게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당과 민원처리를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기간 중 상시 허용하고 우편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또 한-EU FTA 특혜 적용 신청불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EU FTA 수출입 특별지원팀 운영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은 ‘한-EU FTA 수출입 특별지원팀’을 마련하고 7월 한 달 동안 특별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1일 한-EU 자유무역협

정(FTA)이 잠정 발효된 후 특혜 적용 통관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수출입 통관지원을 위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EU 수출물

품의 제때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기간 중 상시 허용하고 우편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또 한-EU FTA 특혜 적용 신청불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본부는 “한국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EU 수출물

품의 제때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기간 중 상시 허용하고 우편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또한-EU FTA 특혜 적용 신청불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본부는 “한국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EU 수출물

품의 제때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기간 중 상시 허용하고 우편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또한-EU FTA 특혜 적용 신청불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본부는 “한국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EU 수출물

품의 제때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특별기간 중 상시 허용하고 우편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또한-EU FTA 특혜 적용 신청불품은 신청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물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본부는 “한국은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행정이다.”고 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며 EU 수출물

품의 제때 선적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또는 구두에 의한